

KIA 4번타자 최형우, 터졌다! 홈런



1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 타이거뱅크 KBO리그 시범경기 개막전 기아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와 홈 경기에 4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한 기아 최형우가 2회 첫 타석에서 솔로 홈런포를 날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두산과 시범경기 개막전 솔로포 “막강 라인업 갖춰져”

나지완-김주형 홈런·한승혁 156km 강속구로 7-4 역전승

“많은 환호 속에 좋은 타구를 날려서 기분이 좋습니다.”

KIA 타이거즈가 1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시범경기 개막전에서 7-4, 역전승을 거뒀다.

‘4번타자’ 최형우는 새 안방에서의 첫 타석을 시원한 홈런으로 장식했다. 팀은 최형우의 한방을 신호탄으로 3개의 홈런포를 날리며 화끈한 공세를 펼쳤다.

KIA 선발로 나온 팻 딘이 2회초 2사에서 국해성을 뚫어 맞는 볼로 내보낸 뒤 최주환에게 우익수 담장 넘어가는 투런포를 허용했다.

0-2로 뒤진 2회말 최형우가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최형우는 KIA 유니폼을 입고 처음 선 고향팀 타석에서 두산 니퍼트의 초

구에 반응했다. 141km 직구를 공략한 최형우는 비거리 120m의 우월 솔로포를 기록, 팬들의 환호 속에 그라운드를 돌았다.

상대 유격수 실책으로 분위기를 이어간 KIA는 이후 김주형의 안타와 이흥구·김선빈의 연속 2루타 등을 묶어 5-2로 승부를 뒤집었다.

6회에는 나지완과 김주형이 나란히 솔로포를 터트리는 등 KIA는 막강해진 타선의 힘을 과시하며 시범경기 첫 승을 장식했다.

WBC의 부진을 털고 기분 좋게 KIA 선수로 출발한 최형우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많은 분이 환호를 보내주셨다. 들뜬 마음이었는데 팀 옮기고 첫 타석에서 좋은 타구가 나왔다”며 “타이밍을 잡고 컨디션

을 올리는 데 중점을 뒀는데 기분 좋게 출발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좌익수로 선발 출장해 3타석을 소화한 최형우의 성적은 3타수 1홈런 1삼진.

최형우는 “더아웃이 낫설지 않았다. WBC에서 컨디션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안타를 못 친 내 잘못이다. 컨디션이 더 올라와야 하는데 연습 많이 하고 있다. (김)선빈이 (안)치흥이도 들어오고 우리 팀의 짜임새가 좋아졌다. 상대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라인업이 갖춰졌다”며 “몸 잘 만들어서 매년 이어온 기록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작년보다는 (팀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신임 외국인’ 선수 팻 딘은 3이닝 1피안타(1피홈런) 2사사구 4탈삼진 2실점으로 한국 무대 스타트를 끊었다. 최고 147km의 직구를 던진 팻 딘은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투심 등을 구사했다. 빠른 템포로 안정되게 경기를 풀어갔지만 지난 오키나와 캠프 연습경기에 이어 세 경기 연속 이어

진 피홈런은 ‘옥에 티’였다.

팻 딘은 “전체적으로 만족스럽다. 체인지업이 좋았다. 홈런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직구 로케이션이 좋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홈런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시즌에 맞춰서 타자 적응해 가는 게 중요하다. 힘이 쌓이는 것이 느껴진다”며 “마운드와 구장 모두 좋았다. 시즌 시작되고 많은 관중이 들어서면 어떨지 기대가 된다”고 홈구장 데뷔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처음 챔피언스필드에 선 ‘예비역’ 박지훈은 9개의 공으로 탈삼진 2개 포함 1이닝을 깔끔하게 소화하며 올 시즌 기대를 받았다. 마무리로 출격한 ‘캠프 MVP’ 한승혁도 1이닝 1탈삼진으로 쾌조의 페이스를 이어갔다. 직구 14개로 3개의 아웃카운트를 만든 한승혁의 최고 구속은 156km, 평균 구속은 153km를 기록했다.

한편 이날 챔피언스필드에는 1400명이 찾아 ‘그라운드의 봄’을 즐겼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시범경기인데 ‘용병 3인’ 동시 출격 안되나요?

KIA, 팻 딘 선발·버나디나 1번에 헥터 등판 불발

‘외국인 3인방’ 해프닝 속에 KIA 헥터의 시범경기 첫 등판이 미뤄졌다.

KIA 타이거즈는 1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두산 베어스와 시범경기 개막전을 치렀다.

경기 전 눈길에 쏠린 곳은 마운드였

다. 두산이 2016시즌 MVP에 빛나는 니퍼트를 선발로 내세운 가운데 KIA에서는 팻 딘에 이어 헥터가 등판한다고 예고를 했다.

하지만 이날 헥터는 마운드에 등장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KBO의 외국인

선수 규정 탓이다.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한 구단이 최대 세 명의 외국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고, 한 경기에 출장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는 두 명으로 제한된다.

팻 딘과 헥터의 등판을 준비한 KIA는 이날 경기 라인업 1번 자리에 중견수 버나디나를 적었다. 따로 1군 엔트리

적용하지 않는 시범경기의 특성상 외국인 선수 세 명의 동반 출전에 문제가 없다고 여긴 것이다.

하지만 KBO 입장은 “시범경기라도 외국인 선수 3명의 동시 출장은 불가능하다”였다.

결국 등판을 준비했던 헥터는 벤치에서 시범경기를 시작했다. 대신 2이닝을 소화하고 헥터에게 마운드를 넘겨줄 예정이었던 팻 딘이 3이닝을 던진 뒤 마운드를 내려왔다. /김여울기자 wool@

기동 사라져 관람하기 편해졌네

챔스필드 부분 리모델링

KIA 타이거즈가 관람객의 편의와 선수들의 휴식 질 향상을 위해 챔피언스 필드를 부분 리모델링했다.

KIA는 팬들의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그물망 기둥 20개 가운데 14개를 제거했다. 특히 중앙좌석에서 관람객의 시야를 방해하던 기둥들을 모두 제거하면서 시야를 넓혔다. 그물망도 미국 메이저리그 구장에서 사용 중인 다이아마 고강도 섬유망으로 교체했다. 새로 교체된 그물망은 기

존보다 얇아 시야 방해를 최소화하지만 내구성은 뛰어나 안전하다. 또 관람객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1, 3루측 그물망의 높이는 기존(7m)보다 2.5m 높였다.

KIA는 스포츠토토 기금을 지원받아 지난해 말 그물망 교체 공사를 마쳤다.

이와 함께 선수들만의 공간인 라커룸을 메이저리그 구장 수준으로 리모델링했다.

기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 선수들의 활동성을 높였고, 휴식 시간에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LPGA 새로운 여왕 가리자

17일 중국서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 개막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2017년 첫 대회를 연다.

KLPGA투어 새해 첫 대회는 오는 17일부터 사흘 동안 중국 하이난 미션힐스 골프장 블랙스톤 코스(파72)에서 개최되는 SGF67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이다. KLPGA투어가 중국 여자프로골프(CLPGA)투어,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와 공동으로 주관한다.

중국에서 열리는 3개 투어 공동 대회지만 우승 경쟁은 한국 선수끼리 벌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유럽투어 선수들의 기량이 워낙 처지기 때문이다. 작년 초대 대회 때 1~5위가 한국 선수 차지였고 30위 이내에 한국 선수 21명 포진했다.

이번 대회는 국내 여자 골프의 판도를 가늠할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작년 국내 무대를 석권한 박성현이 미국으로 떠난 뒤 자리가 빈 국내 1인자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일 후보들이 빠짐없이 출전한다. 지난해 상금랭킹 40위 이내 선수 가운데 이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선수는 4명뿐이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 진출한 박성현, 이정은(29)과 일본으로 떠난 이민영, 그리고 LPGA투어 기아클래식에 초청받은 안시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새색시 허윤경이 빠졌다.

주목할 점은 올해 국내 1인자 자리를 노리는 고진영과 정수연,이승현, 배선우, 김해림, 김민선 등 강호들이 총출동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이 대회 우승으로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각오로 출사표를 냈다.

새로운 여왕 후보들은 저마다 혹독한 겨울 훈련을 통해 기량을 끌어올렸다고 자신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근육을 키워 장타력을 보강하고 쇼트게임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 이번 시즌을 준비했다.

지난해 초반에 잘 나가던 이정민은 지난해 5월부터 슬럼프에 빠져 상금랭킹 21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스윙 코치를 바꾸고 겨울 동안 체력 훈련에 매진한 이정민은 ‘넘버원’ 경쟁에 다시 뛰어들 재비를 갖췄다.

조정민과 오지현, 박지영, 김예진 등 신홍 강자들과 조운지, 김지현, 정희원 등 중견들의 반격도 예상된다. 작년에 신인왕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2년 차 이정은, 이소영, 김지영도 이 대회에 나란히 출전한다. 중국의 사드 배지에 대한 보복이 전방위로 펼쳐지는 가운데 한국 패션 의류 기업 슈퍼리어의 후원으로 치러지지만 하이난 현지 분위기는 우려와 달리 우호적이라고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연합뉴스

김세영 2연패·태극낭자 3연승 하자

17일부터 LPGA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가 미국 본토에서 본격적인 시즌을 펼친다.

올해 바하마, 호주, 태국, 싱가포르에서 차례로 대회를 치른 LPGA투어는 오는 17일부터 나흘 동안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와일드파이어 골프장(파72)에서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을 개최한다. 미국 본토에서 올해 처음 열리는 LPGA투어 대회다.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을 가장 기다려온 선수는 김세영이다.

김세영은 작년 이 대회에서 27언더파를 쳐 LPGA투어 최다 언더파 타이 기록으로 우승했다. 최종 라운드에서는 10언더파를 적어내기도 했다.

김세영은 올해를 대비해 드라이버 정확도를 끌어올렸다. 김세영은 현재 LPGA투어 장타 순위 2위(평균 271.08야드)에 올라 있다. 또 작년에 109위(66.43%)에 그쳤던 드라이버샷 페어웨이 안착률이 올해는 64위(81.55%)로 부쩍 높아졌다. 장타에 정확성이 더해진 셈이다. 골프 클럽을 쥐는 방법을 조금 바꾼 덕을 봤다.

그런 적중률도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지난해 70.45%(30위)였던 그린 적중률이 올해는 무려 81.02%(6위)까지 치솟았다. 퍼트 감각만 돌아온다면 시즌 첫 우승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세영의 생각이다.

김세영이 이 대회 2연패에 성공하면 LPGA투어 한국 선수 3개 대회 연속 우승이다.

예상보다 빨리 정상 컨디션을 찾은 ‘돌아온 여왕’ 박인비와 ‘슈퍼파워’ 박성현도 강력한 우승 도전자다.

박인비는 작년에는 이 대회에서 컷 탈락했다. 하지만 그때는 허리 부상에 손가락 인대 부상까지 겹친 최악의 컨디션이었다.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며 전성기에 기량을 확인한 박인비는 내전김에 2개 대회 연속 정상을 노린다.

박성현은 와일드파이어 골프장이 낯설지 않다. 작년 이 대회에 초청 선수로 출전해 21위를 차지했다. 박성현이 미국 땅에서 열린 LPGA투어 대회에 나선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낯선 미국 땅에서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나흘 중 두 번이나 66타를 때려냈던 박성현은 “해를 만하다”고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이미 1승씩 쟁긴 양희영과 장하나가 시즌 2승을 노리는 가운데 전인지, 유소연도 한국 선수 3개 대회 연속 우승의 주인공을 꿈꾼다. 리디아 고, 에리아 쭈타누간(태국), 평산산(중국) 등 세계랭킹 1~3위도 출전한다.

/연합뉴스